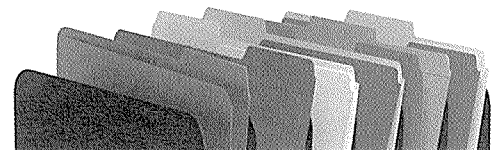




# 1조1천억원 규모의 중장기 R&D 사업에 올인



산업자원부는 2005년도 1조1천억원 규모의 산업기술개발 사업 및 산업기술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지난해 12월 2일 확정하였다.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혁신기술개발(3,450억원)을 비롯하여 부품소재 등 총 7,626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8.5%가 증액되었다. 각 사업별 예산배정 상황을 살펴보면, 중장기 대형(5년 이상, 과제당 20억원 내외) 기술개발사업인 신성장동력, 중기거점, 차세대신기술 사업의 예산은 대폭 확대한 반면, 단기소형 기술개발(1~2년, 과제당 1~3억원) 예산은 예산 사정과 성과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 감액하였다.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산업기술기반구축(1,050억원), 산업기술인력 양성, 테크노파크 조성, 지역기술혁신센터 설치 등 기술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총 3,395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전년 대비 6.7%가 감소했다. 「차세대성장동력 연구기반 구축」(14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해외 R&D 센터유치기반구축」및「산학협력 중심대학」(120억원)이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었다.

2005년도 산자부 R&D 사업의 특징은 설비, 시험장비 등 하드웨어 구축 중심의 연구개발사업을 최고급 엔지니어 양성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한 점이다. 이에 따라 주로 설비, 장비를 구축토록 하는 산업기반구축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축소된 반면(6.7% 감소), 고급 엔지니어들이 참여하게 되는 차세대성장동력, 중기거점사업비는 증액되었다. 특히, 그간 연구개발사업비는 상당부분 연구장비 구축에 사용(사업비의 75%수준)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사업비에서 인건비 비중을 대폭확대토록(23%→45%) 하여, Global Standard수준의 고급기술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는 연구기획시 중대형 과제를 중심으로 선행 특허기술조사를 의무토록하고 이를 과제선정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신규평가시 기술성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을 의무화하고,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시 경제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킬 계획임과 동시에 성과가 불확실한 과제는 과감히 중단 조치했다.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해 계속사업의 중간평가를 강화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하위 5~10%사업에 대해서는 강제탈락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주력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은

2005년 산업기술개발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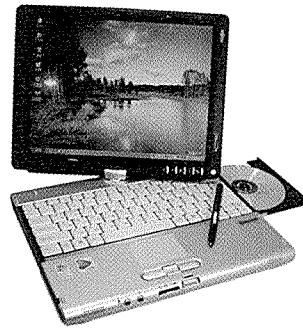
	04예산	05예산	증감	증감율
산업기술개발사업	702,275	762,700	60,425	8.6%
①산업혁신기술개발	317,000	345,000	28,000	8.8%
성장동력기술개발	55,000	70,000	15,000	27.3%
중기거점기술개발	72,000	78,000	6,000	8.3%
차세대신기술개발	57,000	57,000	-	-
공동핵심기술개발	42,000	40,000	△2,000	△4.8%
신기술실용화	14,500	12,500	△2,000	△13.8%
핵심기반기술개발	41,000	48,000	7,000	17%
우수제조기술센터	24,000	27,000	3,000	12.5%
표준화기술개발	7,000	7,000	-	-
기획평가관리	4,500	5,500	1,000	22.2%
②부품소재기술개발	172,800	183,000	10,200	5.9%
부품소재기술개발	132,800	160,000	27,200	20.5%
부품소재종합지원	40,000	23,000	△17,000	△42.5%
③지역특화기술개발	123,080	151,300	28,220	22.9%
④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12,000	12,000	-	-
⑤민군겸용기술개발	6,800	6,000	△800	△11.8%
⑥전자상거래기술개발	5,895	5,200	△695	△11.8%
⑦국제공동기술개발	8,800	8,400	△400	△4.5%
⑧청정생산기술개발	40,000	38,000	△2,000	△5.0%
⑨디자인기술개발	11,000	10,500	△500	△4.5%
■헬스기술지립화	1,500	-	△1,500	△100%
■다목적위성2호(중료)	3,400	-	△3,400	△100%
■다목적위성3호	-	1,500	1,500	신규
■Bio-star 토달 솔루션	-	5,000	5,000	신규

\*상기 예산안은 국회예산 통과시점에서 변동될 수 있음

중기거점과 차세대신기술사업 신규 지원대상분야는 조선, 철강, 섬유화학 등 주력기간산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상분야 선정은 기술로드맵과의 부합정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측면을 고려하며, 정책과 기술성평가를 균형있게 평가했다.

평가관리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발사업비카드제 및 사업비 정산 외부위탁제도를 전면 확대했다. '04년 신규로 지원한 중장기사업(성장동력, 중기거점, 차세대신기술) 위주의 시범실시 후 '05년 전 사업으로 전면 확대했으며 단기사업을 중심으로 시범적용하고 있는 외부공인회계사를 통한 사업비 위탁정산을 2005년부터 전사업으로 확대 실시 할 예정이다.

그간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한 기술개발사업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은 주력산업의 기술력 제고에 큰 공헌을 했다. 최근 1,122개 기술개발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성과 활용조사에 따르면 총 1조 1,241억원(정부 5,720, 민간 5,521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까지 6조 3천억원, 향후 3년간 총 28.3조원의 매출이 예상, 투자대비 25배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기술개발과제 착수시점에서 선진국 대비 44% 수준의 기술력이 개발완료 후 85% 수준으로 제고되었으며, 16,153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폐지함으로써 전체 예산이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TV방송, RFID/USN 등 IT839전략 관련 기술 개발엔 전년 대비 14% 늘어난 3,778억원을 책정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통부 R&D예산 'IT839' 관련 집중 투입

2005년도 분야별 투입예산 및 기술개발 목표

(단위: 백만원, %)

분야	작년실적	올해예산	증감률	기술개발목표
차세대 이동통신	41,960	44,980	7.2	휴대인터넷 상용제품 개발
디지털TV·방송	34,300	40,400	17.8	지상파 DMB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 기술 개발
RFID/USN	7,000	17,000	142.9	유비쿼터스용 전자태그 (RFID) 개발
텔레매틱스	33,700	33,180	Δ1.5	개방형 텔레매틱스 단말 S/W 개발
지능형 서비스로봇	23,000	38,670	24.7	URC 응용을 위한 서비스 기술 개발
홀네트워크	28,000	29,660	5.9	통신·방송 융합 홈서버 개발
임베디드 SW	10,210	13,550	32.7	나노응용체계 및 임베디드 SW개발도구 개발
디지털콘텐츠 및 SW솔루션	28,000	33,120	18.3	실사수준 조연급 디지털 액터제작
IT SoC	23,990	32,620	36.0	모바일 방송·통신용 핵심칩 개발
차세대 PC	20,030	20,300	1.3	입는 유비쿼터스 컴퓨터 시제품 개발
BcN 및 정보보호	81,300	84,320	3.7	차세대 QoS서비스 스위칭 기술개발
소계	331,490	377,800	14.0	148개 과제 (신규: 39개, 계속: 109개)

정보통신부는 올해 IT839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IT 연구개발(R&D)사업에 총 8,57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이날 최종 확정해 발표한 '2005 R&D 투자계획'에 따르면 기술개발과 표준화, 인력 양성, 연구개발 조성 등에 IT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620억원 감소한 8,576억원을 책정했다.

기술개발사업에는 선도기반기술과 우수 신기술 등 출연사업 4,537억원과 용자사업 1,800억원 등 총 6,337억원을 투입한다.

표준화사업엔 302억원, 인력양성사업엔 1,078억원, 기반조성사업엔 859억원을 지원한다.

정통부는 IT839의 투자를 확대한 반면에 기업 직접 지원과 용자사업을 축소하고 투자사업과 지원 필요성이 낮은 사업을

RFID/USN 기술개발 사업엔 전년 대비 143% 증가한 170억원을 지원해 RF 사위기술, SAL 및 지능형 센서모듈, 모바일 기기내장 RFID 리더 등을 개발할 방침이다. 차세대 이동통신과 디지털TV방송 기술엔 각각 449억원, 404억원을 투입해 휴대인터넷(WiBro)상용 제품과 100Mbps급 무선전송 핵심 원천기술, 대화형 멀티미디어 콘텐츠, HFC망 기반 통신·방송 융합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지능형서비스로봇은 24.7% 증가한 387억원을, IT SoC와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에는 각각 36%, 32.7% 증가한 326억원과 136억원을 지원한다.

정통부는 IT839 전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유비쿼터스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 분야에 재원을 집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전자신문]

